한국문화교류 소식

21호 2016년 9월 15일 발행 • 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배려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언

정 일 권
전 국가보훈처 차장, 정치학박사

근래 주변에서 '배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린다.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는 뜻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여러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동체 전체적으로 누구나 안락한 생활 속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적 가치인 행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개인적인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보다 남을 위한 배려에서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배려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다. 그러한 배려의 대상이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일 때 그 효과는 더 크고 빛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는 한글과 태권도 등의 우수한 한국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보급하자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조직이 지향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초석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결과적으로 참여자 개인의 행복감 역시 충족시켜 주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배려이다. 배려의 본질은 받는 사람이 느끼는 고마움이겠으나 주는 사람의 기쁨과 행복감 역시 이에 못지 않다. 이러한 배려문화가 확산될수록 개인적인 행복감이 모여 아름답고 밝은 사회의 조성이 앞당겨지고 이들이 모이면 종국에는 사회통합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지역·계층·세대·이념 간의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한 선진국 진입을 자신하기가 이른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론의 분열이 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책사업에 지역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현상을 조만간에 극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배려문화의 확산은 커지고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된다.

배려는 크게 물질적인 배려와 정신적인 배려로 나누어진다. 물질적인 배려는 문자 그대로 배려하는 사람이 받는 이에게 현금과 물자 등 금전적인 환산이 가능한 것을 제공하는 배려를 말한다. 정신적인 배려는 이를 통해 받는 사람의 정신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려는 것으로 물질적인 요소들은 배제된다. 대개의 경우 물질적인 배려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배려의 성격이 어느 것이든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배려문화의 확산을 장려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배려의 대상이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적 약자일 경우 그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받는 대상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일 때에는 이를 균형 있게 조절하고 배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주는 이가 자발적인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받는 이 역시 고마움을 느끼는 배려문화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가 있을까? 그 확산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공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우리사회를 아름답고 밝은 사회로 이끌 수 있는 배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민간 차원의 법인이 필요하다.

정보화·세계화·민주화의 급진전과 시민사회의 급부상 등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에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익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배려문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를 사회적 운동으로 점화시켜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단법인 등의 법인 설립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 배려문화의 확산을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발달된 각종의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홍보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익사업은 어느 단체 하나의 힘만으로는 성과 달성이 어려울 것이므로, 주도단체 중심으로 주변의 공익 추구 사회단체의 활동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배려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이는 분명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밝은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더불어 함께하는 대한민국〉 세미나 개최

ICKC는 지난 6월 15일(수), 건강한 배려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관심을 널리 환기하기 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참석 못 한 회원들께도 세미나의 취지 및 요지를 전하기 위해, 당시 강연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세심하게 보도한 〈재외동포신문〉의 기사를 전재(全載)한다. 세미나 현장을 상세히 보도한 김민혜 기자와 게재를 허락한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대표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_ ICKC 사무국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이사장 조남철)와 (재)옥란문화재단(이사장 홍사종)은 6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배려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능그룹, 아시아 발전재단(ADF), 재외동포신문이 함께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와 (사)무궁화평화의 길, (재)옥란문화재단,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의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네 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한국문화교류와 발전을 위해 문화운동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업무협약식 기념 촬영. 왼쪽부터 (재)옥란문화재단 홍사종 이사장, ICKC 조남철 이사장,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원회 표재순 위원장, (사)무궁화평화의길 심재익 이사장,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 이병욱 이사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조남철 이사장의 개회사

조남철 이사장은 '꼴찌없는 운동회'를 언급하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배려하는 삶의 태도는 개인적인 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살만한 사회를 향해 나가는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배려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한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타자 배려의 자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2015년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7위)이나 프랑스(20위)보다 앞선 수치다. 교육과 경제적 소득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 탓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봉호 교수는 불행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해석했다. 지나친 경쟁심과 도덕성 문제다. 그는 "모든 비도덕적 행위는 정의를 파괴해 억울함을 양산한다. 공정한 대우를 받으려는 것은 인간의 강력한 본능"이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몇 사람을 항상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링컨의 말을 인용한 손봉호 교수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면 경제적 효과도 따라온다고 강조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욕망의 절제를 전제로 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재)옥란문화재단
홍사종 이사장

옥란문화재단 홍사종 이사장은 〈타문화 배려 없는 자의식으로 과잉된 'K-Culture' 시장 붕괴 위험 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홍 이사장은 산업혁명·정보화혁명 등으로 생존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난 인류의 미래 직업은 제조업이나 IT산업을 넘어서 '꿈을 파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보다 '잘 먹고', '잘 노는' 삶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가 한국문화에 주목하게 된 것은 한국인의 놀이에 대한 특별한 재능과 탐닉이 남다른 창의성과 보태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혁신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인만이 지닌 개성이 잘 발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화와의 소통을 게을리하면 한류 역시 금방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통의 핵심은 타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융합하려는 노력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홍사종 이사장은 일류(日流)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빨리 소멸된 것은, 타 문화에 대한 배려 부족과 자의식 과잉 때문이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사종 이사장은 결론으로 "창의성과 혁신이 기반인 K-Culture의 특성상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K-Culture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한국인들에게 다른 나라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교육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이주 · 동포정책 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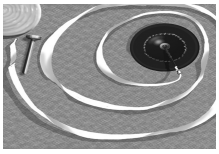
이어 한국이주·동포정책 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이 〈한국 다문화 이민정책의 배려와 차별〉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법무부가 영어 표기를 'Ministry of Justice'라고 쓴다고

소개하면서 법을 뜻하는 'Justice'의 어원이 '형평성,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최근 수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2백만 명에 이르렀다. 자국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 출산율의 저하가 심화된 탓에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허용되고 증가된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고 곽재석 원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곽 원장은 "동포를 배려하기 위한 '재외동포법'에 따라도 중국 동포들은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불합리한 면을 지적했다. 중국동포의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판결에 따라 법이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정책상으로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들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 동포들은 취업활동에 법적 제한을 받는 등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한 곽재석 소장은 국내 이민 정책은 주로 결혼 이민자(다문화외국인)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중국동포들에 비교하여 자신들이 직업선택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인종, 종교의 차별을 금하고 있는 인권 선언과 달리 중국동포를 같은 민족이라고 한국 정부가 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 정책은 완벽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그래서 정치·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공동선을 함께 고민하고 추구하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고, 다문화에 대한 배려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교육하고 함양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관습·제도 등의 개혁을 주도하며 사적 배려를 넘어서는 문화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곽 소장이 내린 결론이다.

〈더불어 함께하는 대한민국〉 세미나 참석자 기념사진

발표를 마친 후에는 조남철 이사장의 사회로 플로어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세 분의 발표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구동성으로 정책적 해결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 교육이 절실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출처_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2016.06.15.



문화탐방기

옥란재 참관기

정 순 영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한편의 잘 짜여진 연극대본에 따른 행사에 참여한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관객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주연 배우가 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작은 축제라고 표현해야 맞다.

참가 전날 만난 지인과의 정국 토론으로 몹시 피곤한 몸이었지만 옥란재 참관을 위해 집에서 담근 매실주와 한국산 도라지벌꿀절편을 챙겨서 집합지인 서초구청 앞에 가기 위해 양재역 가는 전철역을 두 번 갈아 탔다. 하여 더욱 노곤하게 25인승 버스에 실린 몸은 비몽사몽으로 화성시 서신면의 옥란재에 도착했다. 차중에서 누가 옥란재 주인이 남양 홍씨 3대째 홍사종 교수인데 최근 문화재단으로 기증하여 대중에게 숲속 힐링 강좌를 열어 활용하는, 말하자면 '마음이 허하고 머리가 아픈 자는 오라. 휴식이 너희 것이니라' 라고 하는 녹색운동을 펴는 곳이라고 해서 그런 곳이려니 생각했다. 차가 도착할 즈음 옥란재가 멀찌감치 보이는데 나지막한 야산 아래 부드럽게 능선지어진 규모 큰 정원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넓게 감싼다. 넉넉한 분위기가 연출한 고품격 그대로다. 그런데 아뿔사! 주인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놀라서 피곤한 몸 사이로 정신이 곧추서는 것이 아닌가. 그는 얼마 전 다른 행사에서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국회의원이요? 정치인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상대 안해요!' 하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간 무례한이 아닌가? 그런데 이 훌륭한 정원 저택의 주인이라니.

여하간 오늘은 누가 무례를 당하는지 보아야지 하는 심산으로 일행과 함께 따라가니 참관을 진행할 자그마한 야외 파티장이 나오고 품위 있게 짜맞춘 나무탁자들 위에 와인잔과 고급 와인병이 보였다. 그러고는 예의 그 홍 교수가 나서서 이 오래된 정원의 유래와 집안 내력을 술술 향기나는 와인술처럼 쏟아내는데 입담이 보통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 TV 어느 인문학 강좌에서 익은 얼굴이다. 설명 내용을 들어보니 녹색숲 속에서의 삶이야말로 어쭙잖은 종교를 능가하고 진정한 우리를 찾는 시간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얼핏 듣기로는 또 다른 명상적 무례를 상당히 범한 듯한데, 아니나 다를까 함께 온 신학교 출신 어떤 종교학자 한 분이 일어나서 '예수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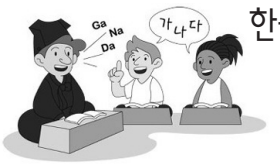
적 인물로 재단하면 시간적, 공간적인 해석의 오류를 낳고 상태적 진실을 놓친다'는 따끔한 지적을 하셨다. 허나 그는 별로 개의치 않고 자연은 종교로부터 자유라는 취지의 자연예찬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서 지구 나이에 따른 인류의 유전자적 차이를 침팬지와 견주어 참석한 우리가 이 분류기준에 볼 때 침팬지 유형일 수 있다고 겁주는데, 흥미로운 얘기가 종횡무진하여 서서히 연극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말하자면 이런 녹색 정원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자연과 유리된 인간의 사념들을 떨쳐야 되는 만큼 종교도 일단 배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식의 무신론적 분위기를 최고도로 끌어올렸다. 앞서 작은 종교논쟁이 있었음에도 녹색삶 예찬에 열심인 그가 어느듯 거부감 없이 친근감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둔갑하여 주연배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컨대 개인적인 선입감이 있는 나조차 심리적 무장해제를 당하는 기분이었으니 다른 분들은 오죽할까… 마약에 취한 듯 완전히 몰입된 것을 확인했는지 그는 정원 뒷산 숲속으로의 산책을 권유하면서 식물학 권위자인 정헌관 박사(산림과학원)에게 숲과 나무에 대한 해설을 넘겼다.

당일 아침에 상당량 뿌린 비 탓인지 공기의 상쾌함이 인솔대장인 박의근 회장께서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외침에 차에 올라타면서 아무 여과없이 피부에 바로 흡수된 탓인지, 함께 온 일행들도 소풍 나온 유치원 아이들 마냥 '야! 정말 신나는 곳이다'라고 이구동성했다. 이어 이 행사 연극대본의 다른 주인공으로 보이는 정 박사가 식물설명을 하면서 '동물이 잘난 척하지만 지구에 등장한 역사를 보면 식물에 상대가 안 되고 오히려 조종당한다'라는 흥미로운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몇가지 나열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나뿐만 아닐 터이다. 이는 필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왕인 인간은 식물로부터 조종당하기보다 나아가서 동식물 모두를 조종함으로 굳이 그런 참혹한 기억을 동물로서 인정하고 동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리라. 참관자에게 홍 교수와 정 박사가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설명한 식물=녹색삶의 공식은 자연스

럽게 우리 일행에게 주입되고 옥란재 무대의 자발적인 조연 배우로 바뀌게 하는 데 3~40분간의 짧은 시간의 숲속 산책으로도 충분한 듯 했다.

뒷동산을 거닐면서 유난히 많이 보인 가시가 무수히 많이 달린 엄나무(오가피나무와 비슷한데 약효와 약재로서의 가치는 3배 이상이라 함)는 나무의 설화적 얘기도 그러하지만 수확 철에 찾아 온 참관객들에게 사과농장이나 포도농장 행사처럼 풀어놓아 마음껏 가져가게 한다는데, 가시 줄기를 이리저리 잘라내는 놀이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았다.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식물이 메타스퀘어와 소철 그리고 은행나무인데 옥란재 정원에서 모두 찾으면 저서 한 권 준다는 홍 교수의 짓궂은 제안을 흥겹게 들으면서 내려와 보니 어느듯 처음 모인 자리이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멀리 바다가 보이고 정원 경계 바깥에는 평화로운 논이 드문드문 농가와 함께 정겹게 보인다. 주위 자연과 옥란재가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 구도이다. 그리고 정원의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조성한 연못이 세 개나 된다. 맨 위 연못 속에 연분홍 수련꽃이 느긋하게 피어 오른 폼이 극락동산의 모퉁이 같다. 원래부터 키우고 있는 지 유난히 흰 백조무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유영하는데 정말이지 국내 어느 인공 정원에서 이렇게 자연미를 꾸밀 수 있을까… 한국 정원의 전형이고 최고 수준이라는 소쇄원은 옥란재에 비하면 오히려 인공미가 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중간 연못가에는 작은 목선을 엎어 놓았는데 아마도 주인이 맘에 드는 방문객이 있으면 호수위에서 술 한 잔 하겠지 하는 생각에 잠길 무렵 '저기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겠다'는 이야기에 그 쪽을 바라보니 아담한 방갈로 커피코너가 있다. 그 내부에 드니 한쪽 벽면 가득히 김병종 서울미대 교수가 그린 동화풍 동물그림들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아이들이 와서 보면 그 자체로 동심세계에 빠질 듯 하다. 맛난 원두커피를 마시고 나와 보니 아래에 한 마리 예쁘장한 수말이 풀어져 있는 널찍한 마장이 천 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홍교수가 직접 말을 타 보인다. 마장 옆에 마구간도 다소곳이 자리 잡고 그 옆에는 갖가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꽃향기와 말똥냄새가 섞여 오히려 구수한 내음으로 와 닿는 것도 별난 느낌이다. 그러고 보니 하얀 백조의 날짐승과 들짐승인 말을 함께 배치하여 무대배경을 한껏 목가적으로 만든 다음 인간들을 초대하여 원래 자연속의 인간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숨은 의도일까?

어쨌든 다양한 전시구조를 가진 옥란재는 지금껏 보아온 여느 정원과 다른 모습이 아주 특색 있게 보였다. 이 복합구조는 처음 옥란재 유래를 설명할 때 고인이 된 어머니의 호가 옥란이고 이 옥란재의 온전한 건설이 순전히 이 여인 한 사람의 공과 덕 때문이라는 홍 교수의 서사적 설명 속에 녹아든 가족사의 숙연함까지 더해지면서 전설의 정원이 된 것이렸다… 최근 옥란재가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힐링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아마도 현재의 모습에 더욱 인간들이 드나드는 번잡한 공간으로 변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옥란재를 낳은 홍 교수의 어머님도 자연과 인간과의 대화가 이 멋진 무대에서 더욱 활발하여 '자연만세 인간만세'로 다함께 성취되길 바라시겠지… 여하튼 몹시 매력이 넘치는 정원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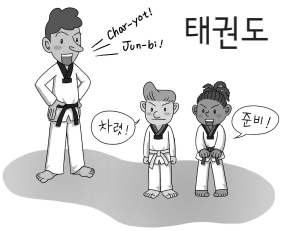


한국어

'한류중심' 태국 대입시험 제2외국어에 한국어 포함된다

'동남아 한류 중심'인 태국의 대학 입학시험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 선택과목이 됐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태국 대학총장협의회(CUPT)가 한국어를 대학입시(PAT)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해 통보해왔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어는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팔리어에 이어 7번째 제2외국어 선택과목이 됐다. 태국 교육 당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부터 한국어 과목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를 대입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국가는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이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최초다. 주태국 한국교육원의 윤소영 원장은 "태국은 한류의 영향력이 크고, 2~3세 교민이 아닌 순수 현지인의 한국어 수요가 많은 곳이지만 그동안 대학입시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았던 탓에 최근 몇 년간 학습자 증가추세가 주춤했다"며 "따라서 이번 입시 과목 채택은 현지 한국어 수요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_ 연합뉴스 2016. 07. 08.



태권도

"차렷, 경례" 팔레스타인 라말라서 열린 태권도 경기… 첫 국제대회

팔레스타인 첫 국제 체육대회로 태권도 경기가 개최됐다. 7월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행정수도인 라말라 북부 비르 제이드 대학교 체육관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 주최로 '팔레스타인 G1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가 개막했다. 전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팔레스타인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팔레스타인에서 태권도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못지않게 인기다. 팔레스타인 태권도 연맹(PTF)에 따르면 서안 지역 인구 290만 명 중 약 1만 명이 태권도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하나 나슈완 PTF 직원은 "국제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한국과 세계태권도연맹이 장비를 지원해 줬다"라며 "덕분에 모든 종목 중 처음으로 국제 대회를 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출처_ 연합뉴스 2016. 07. 19.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창립 5주년 기념 "더불어 함께하는 대한민국"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지난 6월 15일(수),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본회 창립 5주년 기념 "더불어 함께하는 대한민국 – 배려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세미나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표재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및 조남철 이사장을 비롯해 여러 언론사 및 회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이 오간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ICKC와 (재)옥란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재능그룹, 아시아발전재단, 재외동포신문이 후원하였다.

■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탐방

지난 7월 21일(수),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을 관람하였다. 전시 관람에 앞서 문화해설사의 해설에 따라 덕수궁의 연혁 및 그 안에 숨겨진 여러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이중섭 탄생 백주년에 맞춰 기획된 전시였던 만큼 이중섭의 미술세계 전모 또한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이번 탐방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유학 중인 한국학 전공 학생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2016 홍천 마리소리 여름축전' 성황리에 마쳐

매년 여름 강원도 홍천 마리소리골에서 치러지는 "2016 홍천 마리소리 여름 축전"이 올해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4년째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마리소리 여름 축전은 8월 19일~21일 2박 3일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멋과 흥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매년 축전을 후원하고 있는 ICKC에서는, 올해도 많은 회원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축제를 즐겼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2016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
201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www.jei.com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스스로 하면 재밌다. 쉽고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재밌다.
자신감이 붙고 집중력도 생긴다. 시키지 않아도 자꾸 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스스로가 아이를 바꾼다. 미래를 바꾼다.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재능교육

JEI 재능교육 JEI 재능TV JEI English TV 재능스스로러닝센터™ JEI 재능e아카데미 JEI 재능인쇄 JEI 재능유통
JEI PLATZ JEI 재능셀프러닝 JEI 재능교육연수원 JEI 재능학원 JEI 재능대학교 JEI 재능문화 JEI JCC